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



“지역 화합과 상생 협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문·일답)입니다.

조 원 회 의 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노은2동·노은3동 지역구 출신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시정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시장님 안녕하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반갑습니다.

❖ **조원회 의원** 먼저,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 취임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 **조원회 의원** 제9대 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되셨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조원회 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경남과 전남, 양측으로 될 뻔했는데 삼각 체제로 대전을 포함시킨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봤는데, 즉 3축을 만든 것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속히 확정지은 것 축하드립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 **조원휘 의원**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민선 8기 시정이 성공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취임 후 서울과 지역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로 요즘 밤잠이 잘 오지 않으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본래 잠은 잘 자는데요, 단지 업무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직원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고 계속 대전시 현안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조원휘 의원** 저도 잠은 잘 자는데, 저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와 대덕특구 상생협력사업 관련인데요, 내년이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국가 과학기술의 중심지를 대덕군에 조성한 혜안이 놀랍고 대전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50년의 시간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뤄낸 연구의 성과와 과학인재를 길러낸 훌륭한 업적에 비해 우리 대전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현재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상생협력사업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우선 그동안 대덕특구본부에 있는 출연연구기관과 대전시가 사실상 긴밀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었습시다만, 계속돼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특구본부에서 나온 지난 50년 가까이 되는, 50년의 성과물들이 대전에 불을 켜고 산업화하는 데 상당히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더 가깝다 보니까 제가 출연연구기관장들하고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대전시가 그동안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 내려왔을 때, 원자력연구원에 잠시 같이 온다든가 이런 것 빼고 출연연에 직접 방문해서 함께 논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덕특구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올 추석명절 이후에 전 출연연구기관을 예방하고 또 최근에 고경력 과학기술자 그리고 출연연구기관장들, 카이스트 총장 그리고 충남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관계된 분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도 했고 주로 많이 만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먼저 가서, 대덕특구본부와 대전시가 원팀이 돼야만 향후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성과물들을 대전시에다가 산업화하고 대전의 경제를 키우는, 그래서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여기까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로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만을 위한 협력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은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간 연구기관, 시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최근 정책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의 가장 큰 경쟁력을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효문화진흥원과 뿌리공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세계적이고 최첨단의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잘 활용해야 대전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뿌리공원은 문중문화를, 대덕연구단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전학코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개별적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의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대전시에서 마련하고 그 장소는 대전역 주변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유성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인프라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외지인들에게 가장 접근성도 좋으며,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홍보관을 대전역을 중심으로 설치해서 과학도시 대전의 랜드마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역 인근 연구기관 통합홍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역이 유성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전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해서 한 50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10여 개 기관만이 별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실상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출연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명확히 대전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전역 인근에 연구기관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특구의 홍보뿐만 아니고 과학기술도시의 어떤 대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등의 육성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참여연구기관들과의 어떤 공감대와 서로 협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이래서 저는 조만간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홍보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꼭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시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또 뒷부분 질문 때문에 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조원회 의원** 둘째, 셋째 같이 시간 관계상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 과학자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들을, 가칭입니다만 대전시 명예연구원으로 위촉하고 지원의 폭도 더 파격적으로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셋째로 대덕특구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강렬하게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명칭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엑스포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스튜디오큐브 그리고 인근 연구기관을 묶어서 ‘사이언스 엑스포타워 테스트필드’로 명명하고 테스트베드를 수행할 수 있는 거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경력 과학기술자들과의 간담회도 했는데, 제가 거꾸로 먼저 고경력 과학기술자분들께, 저희가 고경력 과학기술자분들이 커뮤니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고경력 과학자들이 대학의 창업하는 분들에게, 현재 창업하는 벤처기업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대전시에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과학기술자는 저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하우에 축적된 이런 과학기술의 역량을 직접 창업하든 또 창업하는 분들과 결합을 하든 이런 공간까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 명예위원 위촉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엑스포공원, 중앙과학관, 스튜디오큐브, 하나의 테스트필드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역의 공공기관에 테스트베드를 형성하는 건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화를 하기 전에 실제 환경에서 실용하는 테스트베드야말로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이런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원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대전시의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Daejeon is U(대전이즈유)’가 현재 공식적인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 **조원회 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 브랜드슬로건으로 사용하실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문의 브랜드슬로건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영문으로 표기된, 전에 대전의 이츠대전이든 지금 대전이즈유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츠대전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 **조원회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문제는 대전시가 한번…….

❖ **조원회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대전이즈유를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래서 그런지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는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이 브랜드슬로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검토를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좀 보니까 브랜드슬로건을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약 17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꾼다, 세금 낭비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주된 주제가 아니고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대전시를 진정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지요?

홍보하고 싶으시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그래도요, 우선…….

❖ **조원희 의원** 아니 도시브랜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당연합니다.

대전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키우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 **조원희 의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 **조원희 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앞서서 얘기한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연구개발특구’로 변경해서 전 세계에 대전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도 사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츠대전’을 ‘대전이즈유’로 오랫동안 정착된 걸 바꾼 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는 문제도 아마 이쪽 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주나 이런 데는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이렇게 도시 이름으로 했는데 어쨌든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워낙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전연구개발특구라고 변칭했을 때 출연연구기관이든 당사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감사하고, 저는 대전에 살고 밖에 있으면서 왜 대전에 있는데 대덕연구단지라고 해야 되는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0년 전에는 행정구역상 여기가 대덕군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전연구단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전이고 대전에 대덕구가 있는데, 연구단지는 유성구의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이름은 대덕연구단지입니다.

지금은 도시마케팅 시대이고 아까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 연구개발특구 5곳이 있는데 네 군데는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부 지역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만 유일하게 대전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과학수도 대전, 과학의 메카 대전이라고 하면서 왜 대전에는 대전연구단지가 없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포항과 당진 어디가 더 홍보효과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출연연들과 합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50주년을 계기로 대전연구단지로 꼭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구명칭 변경은 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고요.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덕구 국회의원께 많은 분들이 대덕구가 소외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뭐 현안을 얘기하면 “거기 대덕구 대덕특구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유성구에 있는지를 중앙정부도 잘 모릅니다.

중앙 정치인들도 잘 모르고.

유성구에 있는지 모르고 다 대덕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한번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희 의원** 시장님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이라 좋은데 시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나서, 질문할 게 많아서 저도 질문 위주로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트램 건설 추진에 있어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도시철도 문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요, 지난 8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총사업비와 기간이 조정되었는데요, 7,492억 원에서 1조 4,837억 원, 7,345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 걸로 예산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보다 더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 걸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건 인수위 과정에서의 답변이고요.

❖ **조원회 의원** 그러니까 더 들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로 해서 인수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 보완하면서 테미고개 문제, 대동오거리에서 가양사거리 문제, 충남대 앞 문제, 도마동 넘어가는 고개 문제를 하면 현재 추산으로 저희가 1조 6천억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랬을 때, 1조 6천억 정도 예산을 했을 때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문제는 일단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금년 말까지.



❖ **조원희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부연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 **조원희 의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고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보완을 해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중앙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원희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고요.

지금 국비와 시비를 당초에는 6 대 4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국비 6, 시비 4 이렇게 예상했던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 **조원희 의원** 그런데 이렇게 1조 6천억 정도 되었을 때 기재부하고의 협의사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 **조원희 의원** 예, 지난 2월 말에 급전방식 확정 및 정거장이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상 노선 길이는 총 31.8km로, 정거장은 45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급전방식 및 트램 차종에 아직도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발표와 같이 유가선·무가선 혼합형인 배터리 급전방식으로 확정된 것인지,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다른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트램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은 연말까지 끝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서 후년 초에 착공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의 향상 방안하고 주요구간 교통대책 그리고 말씀하신 가선인지 무가선인지 하는 트램방식인데요.

전에 부시장이 발표했던 유가선·무가선 혼용하는 안은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가선으로 트램을 건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 관계사들 CEO들한테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없고 도시 발전에 가장 유익한 방안으로 신속하게, 스피드 있게 올 연말까지 모든 결정을 끝낼 생각입니다.

❖ **조원회 의원** 그러니까 가선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무가선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가능하면 무가선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원래 이 트램을 시작할 때, 2014년 제가 7대 초선의원 시작하자마자 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공약이 무가선이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무가선 문제는 의원님께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무가선, 가선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 **조원회 의원** 아니, 됐습니다.

저도 무가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배터리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배터리 방식으로는 무가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배터리 방식은 10km 내외만 가능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38km가 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전방식을 배터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다가 서고 충전하는 방법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원희 의원**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가선 중에서 노선 매립 APS 지면급전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무가선 방식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프랑스 알스톰 사의 특허기술이고 그래서 국부 유출과 국내기술 육성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원희 의원** 알스톰 사지요?

알스톰사에서 우리 고속철, 처음에 테제베도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특허기술이 있다고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 방식하고 현대로템에 수소트램이 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보면 저는 현대로템의 수소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건 수소트램 가격이, 수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향후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저하게 낮추겠다는데 차질 없이 간다면 수소트램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조원회 의원** 알고 있습니다.

수소가스는 현재 개발 중이고 개발 중인 것을 대전에 첫 적용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 **조원회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검토는 하시되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가선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어떤 형태든 시 발전에 가장 유익한 방안으로 선택을 할 생각이고 현재 방향은 가능하면 무가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리고 트램이 이렇게 순환형은 전 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만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최장의 트램입니다.

❖ **조원회 의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이렇게 짚어보고요.

시장께서 공약하신 도시철도 3·4·5호선 건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도시철도 3·4호선이 임기 내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시다만 동시착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착공의 문제가 아니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도시철도는 장기사업이고 노선별 예타도 해야 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중앙정부와 협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2호선도 15년째 이르고 있는데 3·4·5호선 문제도 지금부터 대비를 안 하면.

❖ **조원희 의원** 그러니까 착공은 아니고 추진하겠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당연합니다.

❖ **조원희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도시철도 문제를 중심으로 가자면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기본계획 다 수립하고 노선 대비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함께 추진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2호선이 끝나고 3호선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런 대비가 없는 도시는 늘 다른 도시보다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을 정확히 드린 것이고요, 3·4·5호선 문제도 정확히 용역을 진행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원희 의원**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착공이 아니라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2021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8월에 완료됩니다.

그 후로도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시장께서 공약하신 3·4·5호선이 꼭 반드시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그렇게 하고요.

❖ **조원회 의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정 분야 110억, 구정 분야 50억, 동 분야 40억에 걸쳐 시민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이런 식으로 다 전단지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제 발굴과 사업 선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준비해왔고 이미 주민총회를 끝마친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으로 축소하겠다고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맞습니다.

❖ **조원회 의원** 대전시는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한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하면서 전임 민선 7기에서 30억이던 게 200억으로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재정적인 수요를 감안해서는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선 단기간에 30억에서 200억 원까지 확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2023년도 예산편성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사업 및 공동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서울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비중이 0.158%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는 0.314%이고, 부산광역시는 0.091%인데 저희는 0.314%,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최소한 서울시보다는 거의 20배 이상이 많고요, 부산시보다는 20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한 30배도 더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린 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장께 포괄적인 예산권을 주고, 예산을 주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구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의 정확한 포인트를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 투입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원희 의원**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시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예고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과 예산을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물론 지역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이 어려운 것뿐이지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관계자들이나 처음에 언론이나 이쪽에서 나왔을 때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전시 부채가 많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빼셨기 때문에.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대해서 근거로 내세운 재정능력 악화는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저는 전임 시장이 30억에서…….

❖ **조원회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답변 요구할 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할 게 많고,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시민공동체국 업무보고 시 본 의원 질의에 “올해 예산은 200억 원으로 하겠다.”고 답변하고 “작년에 얼마 했냐?”, “150억 했다.”, “이러이러해서 이걸 참 좋은 제도다, 내년에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다음 날 100억으로 축소 편성해서 각 구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 조정 운영 품의를 결재하셨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00억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 **조원휘 의원** 결재하셨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했습니다.

❖ **조원휘 의원** 결재하셨지요, 결재 날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원휘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에 했습니다.

7월 15일에 하고 7월 19일에 9대 의회 첫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해당 국장이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 여기 지금 국장, 행정부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부 결재를 해놓고 대의기관인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첫 보고에서 어떻게 200억이라고 허위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글썄, 그때 국장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휘 의원**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시민을 우롱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농락한 보고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참여예산 문제는 시장의 정책결정 권한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과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아니, 이 내부결정을 해놓고 시의원들한테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그에 대해서 명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 **조원회 의원** 파악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본 의원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모두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게 시장의 정책결정입니다.

❖ **조원회 의원** 잘못되었다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건 저와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 **조원회 의원**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한번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전임 시장이 급격히 확대한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이미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한 것을 의견을 들어보시고 상의를 하고 숙의를 하시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중이거든요.

아직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 **조원희 의원** 편성을 안 했는데 예고되어 있는 것을 반토막 냈잖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포괄적으로 200억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해놓는 거야말로 아주 잘못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결국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이 편성권을 이렇게 침해해서 200억을 미리 해놨다, 이건 전임 시장의 방침 아닙니까?

❖ **조원희 의원** 전임 시장의 방침 맞는데.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전임 시장의 방침을 있는 그대로 다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 **조원희 의원** 공직자도 그대로 있고 대전시민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 한 분 바뀌었는데.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장 한 분 바뀐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가야 될 길이 바뀐 겁니다.

그에 따라서.

❖ **조원희 의원** 공직자들은 그대로 있고 시장의 생각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뀐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 **조원희 의원** 시민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과감하게 바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원회 의원**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상의 많이 했습니다.

❖ **조원회 의원**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많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 **조원회 의원** 많은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저하고만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상의를 많이 했는데 시의회에서 100억으로 결재해놓고 200억으로 보고합니까?

그게 상의한 건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제가 전 의원님 다 상의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조원회 의원** 아니, 지금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예, 많이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의장님하고 상의했고 많이 했습니다.

❖ **조원회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장께서 이 문제에,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도 그렇고 트램 건설, 도시철도 3호선·4호선·5호선,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개발 등 할 일이 정말 큰일이 많으시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좁쌀만도 못한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원에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의원님께서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다양한 공청회, 의원님들 의견, 또 구정에서 동장들과 주민들과의 의견 이런 것이 다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 **조원희 의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가면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잘못된 정보가 시장께 입력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또 그동안 많이 했던.

❖ **조원희 의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전시와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우 시장께는 소통대장, 로켓추진력 이런 별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할 일은 하시고요, 그리고 국도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3월 7일부터 해오던 것 100억 그냥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다 없애든 30억을 하시든 50억을 하시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이 예산을 줄이고 없애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심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그런 방침이시라면 주권자면서 납세자인 주민들이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3% 쓰는 것은 예산 낭비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낭비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정확히 낭비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조원회 의원** 주민자치회장하고…….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아니, 중복성 있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조원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대전시는 반토막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온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자꾸 반토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 예산이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은 끊임없이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못 박아서 한 것만 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제가 반토막이라는 것은 예고된 예산의 반토막이라는 거지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그것도 정책결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 **조원회 의원** 하여간 이번 주민참여예산 로켓은 제가 볼 때는 오발인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